

“현대문명 주도한 과학기술의 출생신고지”

「엑스포와 미래이야기」 펴낸 吳明 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지금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엑스포가 “근대 문명을 추동시킨 과학기술의 출생신고지”이며 “현대과학기술의 산실이자 요람”으로 불리는 막중한 역할의 행사임을 일반인들은 얼마나 실감하며 구경하고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토목·교통·통신·에너지생산·의복·의료 등의 주요 산업기술 거의가 이 엑스포를 통해 첫선을 보였 다면 이 행사의 가치에 눈뜰까,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벨이 최초의 전화를 사람들 앞에서 작동해보인 곳이며, TV·자동차가 처음으로 소개되고, 오늘날 전세계 놀이공원의 상징이 돼버린 하늘을 도는 거대한 바퀴인 ‘페리스 휠’이, 엄숙한 빅토리아풍 건축분위기에 일대 반란을 일으킨 철조건축물 에펠탑의 등장이 모두 이 엑스포를 통해서였다고 하면 그것이 가진 중요성이 조금 더 피부에 와 닿을지 모르겠다.

엑스포를 둘러싼 재미난 얘기 모음

‘인류 문화와 과학의 제전’으로 불리는 엑스포를 대전에서 열기 위해 3년여에 걸쳐 준비를 해왔고, 개막후에는 연일 수십만명의 관람객을 맞으며 성대히 치르고 있는 대전엑스포의 오명(54) 조직위원장이 최근 펴낸 「엑스포와 미래이야기」(목양사)는 눈과 귀를 압도하는 전시물들을 둘러보느라 관람객들이 자칫 놓쳐버리고 있거나 모르고 있을 엑스포에 관한 이야기들 즉, 역사나 술한 에피소드, 그것이 가진 의미와 파급효과 등을 한권의 책에 엮음으로써 보다 깊이있는 엑스포의 안내를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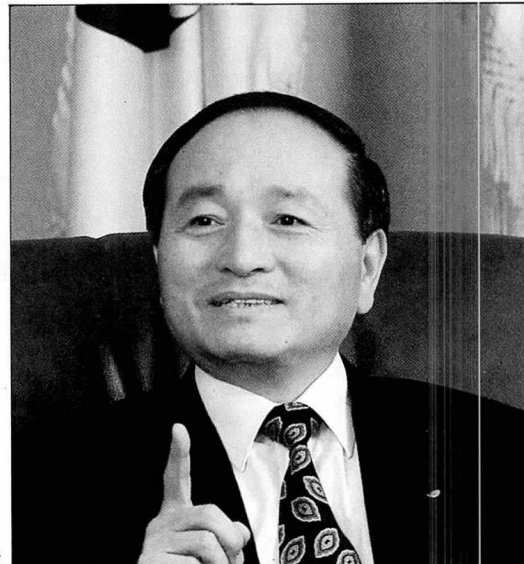
“이 역사적인 행사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엑스포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방법이 무얼까 생각해오다 먼저 엑스포를 준비하며 부딪혔던 이야기부터 정리해보기 시작했지요. 이 책은 엑스포에 대한 강의교재나 이론서가 아니라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들이 가볍게 읽으면서 엑스포의 참의미를 일깨울 수 있으면 합니다.”

엑스포 전반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오늘날 전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한 환경보존과 자원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글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과학인의 시각으로 본 미래 정보화사회의 재미있는 이모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구약 에스더서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왕의 전리품 전시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엑스포 기원에서부터 꼭 1백년전인 1893년 잭과 망진·부채·짚신 등 36점의 전시물을 들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했던 시카고엑스포 이야기, 특히 근대엑스포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1851년의 영국 런던박람회 때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수의 외국인들이 모여들게 되면, 십자군 전쟁후처럼 흑사병이 대유행할 것”이란 반대론이 제기되어 곤욕을 치렀던 일 등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된다.

“대전엑스포는 먼저 과학기술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것으로,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주제를 골라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미래를 생각할 수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엑스포는 어른들의 볼거리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진기한 호기심으로 가득차 있는 아이들,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이다. 오 위원장은 각각의 주제를 가진 전시관을 꾸미며 가장 신경쓴 것이 바로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배려였다고 말한다.



오명 위원장

있는 방법을 추구했지요. 우선 전체 박람회장을 각각의 주제를 갖는 테마전시관 중심으로 설계, 세계 각국이 참가하는 국제전시관 등 몇개의 전시관을 제외한 나머지 20여개의 전시관은 모두 전기에너지, 테크노피아, 자기부상열차, 우주탐험 등의 고유주제를 갖고 각 분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주제관은 대부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국내의 우수 기업들이 주관하고 필요한 연구개발에 여러 연구소와 학계가 결합함으로써 產·學·研 협조의 훌륭한 모범을 창출했다고 자신합니다.”

“엑스포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장”

단적으로 요약해 이야기하자면 엑스포는 어른들의 볼거리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진기한

호기심으로 가득차 있는 아이들,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이다. 오 위원장은 각각의 주제를 가진 전시관을 꾸미며 가장 신경을 쓴 것이 바로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배려였다고 말한다. 그는 “과학기술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까운 미래에 대전엑스포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눈명 몇배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와서 꼭 보라”는 그의 협박(?)에 가까운 간곡한 바람은 이번 엑스포를 통하여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기술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책 또한 그러한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요긴한 참고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정혜옥 기자

보물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비밀, 세계전복의 음모!



클라이브 커슬러 작 오성환 譯
숨통을 조여오는 흥분과 긴장— 이것이 스릴러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비밀을 담은 난파선 한 척이 그린란드와 얼어붙은 바다 밑에서 발견된다. 세계질서를 바꿔놓을 엄청난 보물의 존재를 알리는 단서와 함께— 보물을 추적하는 주인공과 암살자 사이에 벌어지는 숨막히는 대결, 시시각각 다가오는 테러의 공포!
*클라이브 커슬러의 1988년작 국제적인 난파선 탐사(2)이기도 한 그만이 쓸 수 있는 이색적 스릴러—여름여저 전율에 떠난다!
정가: 5,500(상하 각권)

드래건

아직도 일본 열도의 바다 밑엔 원자폭탄이 가라앉아 있다.



클라이브 커슬러 작 정영목 譯
'클라이브 커슬러'의 최신 하이테크 스릴러작!
세계 2차대전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즈음 지금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드래건'이라는 거대한 지하조직을 이용, 세계지배를 목표로 '가이덴 프로젝트'를 은밀하게 추진한다. 이에 미 정부는 세계를 구출할 비밀 병기를 급파하게 되는데...
정가: 5,500(상하 각권)

사하라

미이라로 발견된 링컨! 그는 피살된게 아니었다.



클라이브 커슬러 작 공경희 譯
오대양을 넘나드는 장쾌한 스케일의 스릴러작—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싼 주인공과 테러조직의 대결,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오대양에 걸쳐 펼쳐지는 액션, 난파선을 탐사하던 중 링컨의 미이라가 발견되는데... 호흡을 멈추게 하는 테러의 공포! 페이지 페이지가 광속으로 넘어간다.
*전 세계에 6천만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클라이브 커슬러의 아식작
정가: 5,500(상하 각권)

동아출판사 ☎861-4818